

# “울곡부대가 고등학교 졸업 모교예요”

## 22사단 병사 31명 고졸 검정고시 합격 ... 부대서 가족 등 초대 조출한 졸업식 개최

집안형편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군에 입대한 22사단 병사 31명이 제약된 군생활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고졸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다.

22사단은 지난 9일 이들 합격생의 부모와 친지 등을 부대로 초청한 가운데 조출한 졸업식을 열어줘 부대를 ‘모교’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검정고시 합격생들이 고교 졸업식의 추억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여긴 부대장의 배려였다.

이번에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31명의 병사들은 평일 야간과 주말을 이용해 부대 사이버 정보 지식방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사이버 강좌를 들었다. 또 동료 병사들로 구성된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부대는 고교를 졸업하지 못한 병사들을 위해 검정고시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줘 합격률을 높여가고 있다. 올해 전반기에 68명이 응시해 18명이 합격한데 이어 이번에 실시된 후반기에는 94명이 응시해 31명이 합격했다.

이번 합격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병사들도 많았다. 서범권 부사관 후보생(21세)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와 지내던 중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입대했다.

군에서 부사관이라는 새로운 꿈을 찾았지만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학력이 필요했던 서 후보생은 검정고시에 응시해 이번에 당당히 합격했다. 현재 서 후보생은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훈련에 매진하며

부사관 임관을 준비하고 있다.

안성환 일병(20세)은 IMF로 가세가 갑자기 기운 이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2년 여간 방황하다 19세의 나이로 군에 입대했다.

안 일병은 입대 후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과 학업에 대한 갈망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해 2개월 만에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현재 안 일병은 대학 입학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갖고 다시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22사단 관계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생들은 군 생활이 단순



22사단 병사 31명이 지난 9일 부대에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 졸업식을 가졌다.

한 ‘의무복부’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고교를 졸업한 ‘모교’라는 의미를 갖게 되다보니 군 생활에 더욱 성실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연간 2회 검정고시 합격

자 졸업식을 개최해 검정고시 응시 저변 확대 및 합격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최광호 기자

# 고성군자전거연합회 값진 메달 획득

## 제19회 도민생활체육대회 남 개인 은1·동3 ... 여 단체 동

지난 9월 3~4일 홍천군 일원에서 개최된 제19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자전거경기에서 고성군선수단이 남자 개인전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또 여자단체전에서는 동메달을 따냈다.

이날 대회에는 고성군자전거연합회(회장 조승복) 소속 선수와 회원 20여명 참여해 홍천군 현지에서 열린 응원전을 함께 펼쳤다.

생활체육대회는 도민체전과는 달리 시 1부, 군 2부의 구분없이 도내 18개 시군 선

수단이 동시에 출전해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의 메달 획득은 값진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인구가 많은 대형 시의 경우 최근 자전거 동호인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선수층이 넓고 기량도 매년 좋아져 고성군처럼 군세가 약한 지역에서는 입상권 근처에 드는 것조차도 매우 어려운



제19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한 고성군선수단의 경기 모습. 왼쪽부터 전형원, 윤원길, 김인형 선수. 뒤는 조승복 연합회장.

실정이다.

그러나 고성군선수단은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조승복 연합회장이 직접 자전거에 올라 선수들을 선발하고 인솔해 새벽, 오전, 오후에 강도 높은 훈련을 가짐으로서 이번 생활체육대회에서 값진 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경기성적 △여자단체전: 문영심 손영옥 김정임 김경화(굴렁쇠 엠티비) 동메달 △남자개인전: 김인형(고성사이클) 은메달, 윤원길(고성엠티비) 동메달 △산악개인전: 함태형(고성사이클) 은메달, 전형원(고성엠티비) 동메달.

장공순 시민기자

# 장병들 성금 모아 연탄배달

## 송강포대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전달 행사



지난 16일 송강포대 군장병들이 거진지역 소외계층 19가정에 겨울나기 사랑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거진읍 송강리 주둔 송강포대(포대장 원시연) 장병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을 전달했다.

송강포대는 추수주일인 지난 11일 부대내 반석군 인교회(담임목사 김경준)에서 전 장병의 정성이 담긴 현금을 모았다.

송강포대는 이 현금으로 거진지역 어려운 이웃 19가정에 1가구당 100장씩 모두 1천900장의 연탄을 전달하기로 하고, 16일 직접 배달에 나섰다.

이날 연탄배달 행사에는 원시연 포대장과 김경준 목사를 비롯해 장병 10여 명이 참여했다.

원시연 포대장은 “장병들과 함께 이렇게 보람있는 일에 동참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매우 흐뭇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를 지켜본 이웃 주민 예길해씨(71세)는 “갈수록 삭막한 세상에 군장병들의 손길이 참으로 따스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송강포대는 매년 지역발전과 청소년육성을 위해 장학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연 2회 어려운 사랑나눔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박승근 기자